

# 사회적 자본과 여성의 정치참여: 저신뢰와 세대, 이념적 분극화\*

송 경 재 | 경희대학교

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주목해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적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성별차이와 여성의 정치참여 유형별 행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고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주관한 전화조사결과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차이는 일반화된 타인신뢰와 공적신뢰는 유의미하지 않고 호혜성의 규범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차이는 여성이 비관습적인 참여에 적극적임을 확인했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서 여성들의 관습적인 참여는 일반화된 타인 신뢰가 강할수록, 고연령, 고학력, 저소득, 보수적일수록 적극적이다. 그리고 비관습적인 참여는 공동체의 이익을 선호할수록, 저연령, 고학력, 진보적 일수록 적극적이다.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의 일반화된 신뢰의 저하, 세대와 이념적 분극화에 따른 왜곡된 정치참여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발견했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여성의 정치참여, 일반화된 신뢰, 분극화

## I. 들어가며

민주주의는 민(民)에 의한 지배(rule by demos)로 정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1864년 링컨(Lincoln)의 게티스버그(Gettysburg) 연설에서 주장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체일 것이다(Heywood 2004, 139-140). 하

\*이 논문은 (사)21세기여성정치연합이 진행한 2014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의 『2014 지방선거와 여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작성한 부분의 주요 내용과 데이터를 전면 재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세심한 비판으로 논문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2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2015)

지만 민주주의는 버나드 크릭(B. Crick 2003)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공적문제의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단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현에 있어서도 현대 민주주의는 여러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등장한 제도적 피로감과 함께 민주적 책임성과 대표성 하락이라는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의 문제는 오늘날 민주주의 이행국가만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공고화(consolidation of democracy)된 국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Diamond 1999; Inglehart 1998).

학자들이 제기하는 많은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는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평등도 있다. 이는 앞서 대의제 민주주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대표성의 문제와 맞물려 주요한 정치 쟁점이 된 지 오래다. 1920년대 이후 등장한 급진주의적인 여성해방론(Millett 1970)과 같은 성적 혁명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현대의 국가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공간과 제도의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여성들은 과거에 강요된 분리와 예속 또는 남성과의 대립적인 접근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개인으로서의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보다 많은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도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교육과 법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도적인 노력과 함께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이소영 2013, 256). 이러한 제도적·정치적 노력으로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은 특히 정치계에서는 활발하다.<sup>1)</sup>

그러나 여성의 정치적 진출은 활발하지만 여전히 전체 여성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와 실질적인 참여는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학계의 연구도 이러한 관심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에서는 여성 정치참여 중에서 투표에 주목한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전통적 성차(gender gap)로 인해 여성일수록 이념적으로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

---

1)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당법>의 개정을 통해서 비례대표의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되었고,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성 국회의원들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3.0%(299명 중 9명)에 불과했던 여성 국회의원들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47명이 원내에 진출하여 15.7%의 비율로 증가했다(김원홍·김혜영 2012, 3-4). 가장 최근의 전국 선거라고 할 수 있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여성비율은 광역과 기초의원 포함해서 총 3687명 중 845명으로 22.9%로 집계되었다. 기초단체장 역시 2010년 6명에서 2014년 9명으로 증가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매일경제 2014/06/19, 29).

향이 많았지만(Inglehart 1977) 1980년대부터 여성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의 권익지향적인 투표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Manza and Brooks 1998). 한국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서 주로 투표 행태에 주목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지향적인 투표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다(김원홍 2003; 김형준 2014). 특히 여성의 정치적 선택이나 선호도, 그리고 여성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배정아·윤태섭 2014; 이소영 2013).

이상의 최근 여성의 정치참여 연구 경향에 따라 학계의 연구는 여성의 정치적(공직) 진출, 여성 유권자 분석 등의 일반론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여성의 참여행태 전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여성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정치참여의 여러 유형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남성과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있지만, 여성만을 특화하여 남성과 비교하여 정치참여 유형별 특성에 관한 연구는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축적을 통한 정치참여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접근법(social capital approach)을 적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연구를 심화시켜 여성의 정치참여 유형을 관습적 참여와 비관습적 참여(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participation)로 유형화하여(Ester and Vinken 2003; 이승중·김혜정 2011) 각각을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론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성별차이, 그리고 여성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어떤 형태의 정치참여에 영향이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여성 정치참여를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틀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사용하고 자 한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학에서 퍼트남(Putnam 1993)이 도입하여 널리 알려진 접

#### 4 한국정치연구 제24집 제2호(2015)

근법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신뢰(trust), 규범(norm), 수평적 네트워크(horizontal network)로 이루어진 공공재(public goods)이며 협력적 행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규정한다(Putnam 1993, 167-173; 2000; Norris 2002). 여기서 주목 받는 것은 참여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와 협력이 가능하다면 시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 사회적 자본 선순환 논의의 출발이다(Diamond 1999, 226).

그런 차원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이론 프레임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수록 참여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을 근거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Norris 2002).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정의는 현대적인 것이지만 사회적 자본의 핵심 내용은 19세기 초반 토크빌(Tocqueville 2003)의 *Democracy in America*라는 저서에서 제기된다. 그는 미국 건국초기의 시민사회를 분석하고, 미국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의 형성과 참여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결사체의 예술’(art of association)이라고 까지 평가한 바 있다. 토크빌의 선형적인 탐구는 이후 20세기에 재 각각되면서 공동체 민주주의적인 전통을 강조하는 이른바 네오 토크빌리안(neo-Tocquevillian)으로 승계된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퍼트남 이전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인 발전은 부르뒤에(Bourdieu)와 콜만(Coleman)의 공헌이 크다. 부르뒤에(1986)는 사회적 자본의 형태와 축적을 연구하였다. 부르뒤에(1986, 248-249)는 자본을 물질 자본, 문화 자본 그리고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자본이 인지적이고 잠재적이며 축적 가능한 것임을 규명했다. 콜만(Coleman 1990)은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의 사회적 관계 또는 연결망(network)에 주목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속성이 아닌 사회적인 관계에서 배태된 것으로 파악하여 공공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와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 또는 정치참여와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는 최근 무척 활발하다. 퍼트남(1993)의 이탈리아와 미국 연구 이래 사회적 자본 형성과 축적이 시민들의 참여정향과 밀접한 인과성이 있다는 것이 규명되었다(Putnam 2000; 이동원 외 2010).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시민성이 향상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

도 증진하면서 다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공동체성과 상호 신뢰, 협력이 강화된다는 민주주의의 선순환 효과(virtuous circle effect)에 주목한다. 연구자들은 강한 시민사회를 가질수록 높은 시민성이 사회화되고(socialization function), 연계와 협력의 수평적 네트워크, 신뢰, 규범이 더욱 향상된다고 보았다.

그런 맥락에서 퍼트남(2000)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사회적 자본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시민참여가 확대되어 공동체와 결사체의 참여가 증가해야 한다고 보았다(Diamond 1999, 227). 그런데 역으로 설명한다면, 퍼트남의 논의는 사회적 자본 쇠퇴가 공동체 질서를 붕괴시키고 시민참여를 쇠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연구에 주목한 국제기구들은 사회적 자본 형성이 지역 공동체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한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OECD, UNDP 등 국제기구에서 저개발 국가의 지역발전과 시민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공동체성의 구축, 협력과 신뢰를 만들기 위한 교육의 확대 등의 사회적 자본 활성화 프로젝트를 실험 중에 있는 것도 선행 연구의 결과 때문이다(Shah et al. 2001;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2003).

한국 학계에서도 세계적인 조류와 연계되어 사회적 자본연구가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언론학, 경제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1980년대부터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협력의 공동체성과 자발적인 참여가 강화되어 경제적 성과와 상관관계가 높으며(이동원 외 2010, 63-71; Uslaner 2010, 365), 교육적인 성과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사회과학 전반에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소개를 벗어나 사회적 자본 축적 결과로서 시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이 가능한 가라는 주제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신뢰와 협력의 민주주의 효과, 정치참여 효과와 관련된 지역 및 국가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장수찬 2002; 박희봉 외 2005, 553-554; 송경재 2010).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정보사회와 연계된 e-사회적 자본 가능성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등장으로 인한 네트워크 연계성에 주목한 학자들의 네트워크적인 사회적 자본 형성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송경재 2011; 김희조 2010; 최은경·연보영 2012).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반대로 비판도 존재한다(이동원 외 2010, 125; 송경재 2010에서 재인용). 가장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개념화와 측정(measure)의 어려움을 언급한다. 사회적 자본은 물질자본이나 인적

자본과 달리 조작화와 개념화가 어렵기 때문에 측정도 어렵다. 신뢰의 수준을 어떤 변인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 존재한다. 또 사회적 자본이 다층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사회나 국가의 특성, 종교,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사회적 자본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비교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Stolle and Rochon 1998).

둘째 비판으로 사회적 자본을 강조한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시민단체 활성화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향상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있다. 예컨대,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 조류 탐사회나 합창단 등이 파시즘에 이용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 자생적인 조직들이 권력유지에 동원되기도 했다(박찬욱 2004, 16). 이에 대해 시민단체가 증가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버만(Berman 1997)은 시민사회의 발전과 제도적인 조응 속에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는 것이지, 단순히 시민단체가 많다고 해서 사회적 자본이 높다는 해석은 틀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런 맥락에서 버만(Berman 1997, 567-572)은 시민사회와 정치적 제도와의 긍정적인 결합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비판은 퍼트남(2000)의 연구결과에 대한 것이다. 그는 미국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면서 미국 사회의 시민단체와 결사체의 감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퍼트남의 논리와 다르게 후속 연구에 따르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스포츠 동호회와 친목모임 형태의 시민결사체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Norris 2002; Newton 1997, 575-586). 그리고 오프라인 결사체가 약간 감소한다고 해도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된 다양한 사이버 커뮤니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포함한다면 미국에서 시민단체 및 결사체 수가 줄어들었다는 전제는 잘못된 것이란 비판이 있다 (Chadwick 2006; 송경재 2011).

이러한 사회적 자본 연구의 이론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시민참여의 민주주의 효과를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접근이 자발적인 결사체와 시민참여 활성화에 직접적인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는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참여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최근의 연구로는 여성의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활용에 따른 저항적인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했다. 송경재(2014)는 이러한 비판습적인 참여를 ‘저항하는 여성’으로 규정하고 그 증가 원인을 학습효과와 민주화 이후의 경험, 여성들

의 제도화된 참여의 제약 등에서 찾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사회적 자본 연구가 국가, 지역, 특정 집단 및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주제인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이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미진한 연구 분야였던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론 및 연구 문제

#### 1. 연구방법론

먼저, 연구 분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치참여 행태와 시민의식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을 설계했다. 문항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변수를 설정하고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문항설계는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퓨 리서치 센터(The Pew Research Center)의 정치참여와 시민의식 설문조사 문항을 참조하여 작성했다. 특히 정기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세계가치조사는 신뢰와 사회참여, 정치, 정보획득의 차원 등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항 중에서 정부신뢰와 호혜성 등의 문항을 본 연구 설계에 반영하였다. 퓨 리서치 센터 역시 정기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다양한 유형화와 정치적 행위 간의 인과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 문항을 바탕으로 연구 설문을 구성했다.

설문조사 단계는 2014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709명을 조사했다. 표집 방법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서 주관했다. 표본의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7\%$  Point를 기록했다. 수집된 표본은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독립표본 t-test,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했다.

#### 2. 변수의 설정과 연구모형

여성과 남성의 정치참여 행태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초기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

성 간의 정치행태의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성의 참정권 확대와 정치참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변인들을 투입하면서 여성 유권자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분석할 것은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적용하여 정치참여 행태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변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의 설문을 반영하여 우선,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 변인을 조작화하였다. 첫째, 신뢰(trust)는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송경재 2010; 2014). 사회적 자본은 무형의 사회 공공재이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집단 내의 결속형 신뢰(bonding trust)가 아닌 일반화된 신뢰가 더 중요하다. 특히 신뢰는 타인에 대한 인식이므로 타인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이동원 외 2010). 이에 대해 우슬러너(Uslaner 2010)는 타인에 대한 신뢰의 유형화를 통해서 일반화된 신뢰를 사적인 일반인에 대한 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했다. 물론, 공적신뢰는 정부에서부터 공적조직에 대한 신뢰가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슬러너의 신뢰의 층위적 구분을 적용하여 사적신뢰는 타인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적용한 일반화된 타인신뢰를 측정하여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공적신뢰는 신뢰를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제도 및 공공의 신뢰를 측정할 것이다(이동원 외 2010). 따라서 일반화된 타인 신뢰는 i) 지나가는 모르는 타인에 대한 신뢰로, 공적신뢰는 ii)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의 신뢰를 측정했다.<sup>2)</sup>

다음 측정 변인은 공동체에 대한 호혜성의 규범이다. 뉴튼(Newton 1997, 575-586)은 일반적 호혜성이란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되돌아오며,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성립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서진완·박희봉 2003, 12; 이동원 외 2010).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무수히 많은 호혜성의 규범을 조작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변인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란 부분에 주목했다. 다양한 호혜성의 규범을 조작화할 때 이 요소가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공동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좋은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호혜성의

2)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척도)와 선생님께서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정부를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척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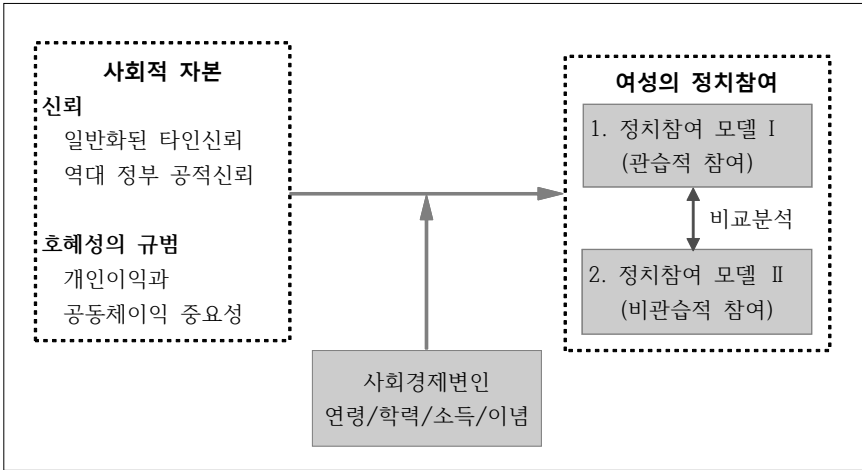
규범을 iii) 공동체 이익을 위한 개인이익 희생 여부를 통하여 측정했다(NESF 2003; Putnam 2000).<sup>3)</sup>

종속변수로서의 정치참여는 오랫동안 민주주의의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었지만 현대적 의미에서의 재조명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페이트먼(Pateman 1970)을 위시로 한 참여민주주의자들의 등장 이후 시민문화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선순환의 촉발제로서 정치참여 개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된다. 버바와 나이(Verba and Nie 1972)는 정치참여를 협소하게 정의하여 시민이 정부 인사를 선출하거나 정부나 정책, 법안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보았고, 밀브레드와 고엘(Milbrath and Goel 1977)은 포괄적으로 정치적인 관심을 유지하는 것 자체로 확대했다(이승종·김혜정 2011). 따라서 정치참여는 정치적 관심에서 청원 보이콧, 파업, 시위 등에 이르기 까지 다층적이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Dalton 1996). 페이트먼(1970, 68-71)은 참여의 형태를 완전 참여(full participation)와 부분 참여(partial participation), 가 참여(pseudo participation) 등으로 참여의 단계를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 분류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와 취지가 다르고, 한국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로 참여의 관습화 정도에 따른 분류를 시도한 반즈와 카아스 등(Barnes and Kaase et al. 1979)이 구분한 정치참여 분류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정치학계에서 가장 많이 분석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i) 가장 최근의 전국선거인 6·4 지방선거 참여를 질의한 관습적 참여와 ii) 촛불시위 및 집회참여를 질의한 비관습적 참여를 적용한다(Milbrath and Goel 1977; Verba and Nie 1972; Ester and Vinken 2003, 659-680; Norris 2002; 송경재 2011; 2014).<sup>4)</sup>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 형성의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령, 소득, 교육, 이념별 변인을 보완했다. 각각의 변인별 차이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특히, 소득과 교육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립셋(Lipset 1960)에 따르면, 경제적 요인은 사회의 부, 산업화, 도시화, 교육 등에 의하여 측정되며, 이는 정치의 민주주의를 촉진한다. 그리고 이념 역

3)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 =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 4척도)

4) 선생님께서는 이번 6·4 지방선거에 투표하셨습니다까, 투표하지 않으셨습니까?(1 = 투표하지 않았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촛불집회나 서명, 집회 등에 참여하신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1=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4척도)



〈그림 1〉 모형의 설정

시 주요한 사회경제변인으로 최근 한국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 지 오래다. 물론 이념을 측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며 자기이념이 일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느냐는 비판점이 있다(박경미 외 2014, 206). 하지만 사회경제적 변인의 하나로써 이념은 정치참여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된지 오래이다(강원택 2007; 이갑윤·이현우 2014, 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를 분석하는 데 이념 변인은 유용할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남성과 여성의 신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남성과 여성의 호혜성의 규범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남성과 여성의 관습적 정치참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남성과 여성의 비관습적 정치참여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여성의 사회적 자본은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 유형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IV. 분석

### 1. 표본 개요

표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남성은 352명(49.6%), 여성은 357명(50.4%)로 추출되었다. 연령은 인구통계학적인 비중을 고려하여 19~29세 127명(17.9%), 30대 137명(19.3%), 40대 155명(21.9%), 50대 139명(19.6%), 60대 이상 151명(21.3%)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대재와 대졸이 332명(46.8)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199명(28.0%), 중졸이하 112명(15.8%)가 뒤를 이었다. 소득은 201~400만 원이 204명(28.7%), 200만 원 이하 174명(24.5%), 401~600만 원 160명(22.6%)를 기록했다. 이념은 보수적인 편이 267명(37.6%), 중도 202명(28.5%), 진보적인 편이 156명(21.9%)로 나타났다.

### 2. 분석

#### 1)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 차이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기법 중의 하나인 독립표본 t-test를 이용하여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남성과 여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된 것은 1개의 변인이었다. 먼저, 사회적 자본 변인들 중에서는 일반화된 타인신뢰는 통계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도 없었고 평균도 남성이 2.51, 여성 2.49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조금 더 신뢰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화된 타인신뢰가 낮은 것은 결론에 후술하겠지만 퍼트남(Putnam 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이 선순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참여에 부정적인 탓일 수 있다.

둘째, 공적신뢰를 조작화한 역대 정부신뢰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t=-0.660$ ,  $p=0.509$ ). 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공적신뢰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 간의 공적신뢰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교차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공정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신뢰하지 않는다 47.7% > 신뢰한다 44.9%).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

〈표 1〉 표본 개요

구 분		빈 도	비 율(%)	비 고
합 계		709	100.0	
성	남성	352	49.6	평균 1.50 표준편차 0.500
	여성	357	50.4	
연령	만 19~29세	127	17.9	평균 3.07 표준편차 1.398
	30대	137	19.3	
	40대	155	21.9	
	50대	139	19.6	
	60대 이상	151	21.3	
학력	중졸 이하	112	15.8	평균 2.51 표준편차 0.898
	고졸	199	28.0	
	대재/대졸	332	46.8	
	대학원재 이상	57	8.1	
	모름/무응답	9	1.3	
소득	200만원 이하	174	24.5	평균 4.89 표준편차 2.997
	201~400만원	204	28.7	
	401~600만원	160	22.6	
	601~800만원	26	3.6	
	801만원 이상	23	3.3	
	모름/무응답	123	17.3	
이념	매우 보수적	48	6.8	평균 3.16 표준편차 1.388
	보수적인 편	219	30.8	
	중도적	202	28.5	
	진보적인 편	137	19.3	
	매우 진보적	19	2.6	
	모름/무응답	84	11.9	

되었다(남성 평균 2.60 < 여성 평균 2.66).

셋째, 호혜성의 규범을 측정하기 위한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 간의 선택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t=-2.004, p<0.05$ ). 남성은 공동체성이 강한 것으로, 그리고 여성은 개인이익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점 리커트(Likert) 척도에서 남성(집단평균 2.19)에 비해, 여성(집단평균 2.35)이 공동체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중요시한다고 선택했다. 이를 두고 여성이 상대적

〈표 2〉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 차이

	구분	N	평균	t	p
일반화된 신뢰	남성	352	2.51	0.278	0.783 (-)
	여성	357	2.49		
공적 신뢰	남성	352	2.60	-0.660	0.509 (-)
	여성	357	2.66		
호혜성의 규범 (공동체와 개인 이익 중요)	남성	352	2.19	-2.004	0.045 (*)
	여성	357	2.35		

# < 0.1, \* < 0.05, \*\* < 0.01, \*\*\* < 0.001

으로 공동체이익보다 개인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4점 척도의 중앙값이 2.5임을 감안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 여전히 공동체 이익을 선호하고 있으나, 두 집단 간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좀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여성이 개인이익 중심적이라는 성급한 해석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 2)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형태 차이

다음으로 분석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의 차이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자본 차이와 마찬가지로 독립표본 t-test의 통계 기법을 사용했다. 분석 결과 첫째, 관습적 참여는 남성과 여성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t=-1.215$ ,  $p=0.225$ ). 그러나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 검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두 집단 모두 ‘투표하지 않았다’보다 ‘투표했다’라는 응답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관습적인 정치참여에는 적극적이라는 의미이다.

둘째, 비관습적인 참여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발견된다( $t=-2.800$ ,  $p < 0.01$ ). 여성이 더욱 적극적인 비관습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주로 관습적인 참여를 선호한다면 여성들은 집회나 시위, 촛불집회 등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에 적극적이라는 부분은 한국 여성정치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관습적인 참여도 여성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남성과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비관습적인 참여는 더욱 적극적이다. 여성들의 비관습적인 참여가 증가하는 현상은 이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서도 여성의 참여가 증가했다는 데서 확인된 바가 있다(이갑윤 2010). 윤성이와 장우영(2008)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여성 특히 여성 청소년의 비관습적 참여가 향후 한국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될 것으로 예

〈표 3〉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별 차이

	전체평균	구분	N	평균	t	p
관습적 참여 (6·4 지방선거 참여)	1.80	남성 여성	352 357	1.79 1.82	-1.215	0.225 (-)
비관습적 참여	1.61	남성 여성	352 357	1.51 1.71	-2.800	0.005 (**)

# < 0.1, \* < 0.05, \*\* < 0.01, \*\*\* < 0.001

측한 바 있는데, 실제 이번 연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었다. 향후 이러한 여성의 강한 비관습적인 참여 지향성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여성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존재라는 차별적인 관점과 둘째, 한자녀 가정의 증가로 인해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치적 의식의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가지 가설 모두 후속 연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3)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마지막으로, 여성을 2차 표본 추출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정치참여의 두 가지 형태를 분석한 바와 같이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유형별 차이는 존재한다. 본 연구모델은 세부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변인과 사회경제변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여성의 정치참여 I 모델은 관습적인 정치참여를, 그리고 정치참여 II 모델은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를 종속변수로 각각 설정했다. 모델은 모든 변인을 투입(enter)한 최소자승법(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모델 모두 그리고 자기상관(autocorrelation)을 확인한 결과, 더번-왓슨(Durbin-Watson, D-W) 계수로 평가하여 자기상관은 없었다.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인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사회경제변인을 투입하여 정치참여의 2가지 차원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정치참여 I 모델 분석결과 회귀모델의 적절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172$ ,  $p < 0.001$ ). 그리고 모델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0.167$ 로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적 자본 변인 중에서 여성의 관습적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일반화된 타인신뢰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여성은 일반화된 타인신뢰가 높을

수록, 관습적 정치참여인 투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적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조작화한 개인이익과 공동체이익의 중요성은 관습적인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변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하지만 개인이익과 공동체이익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방향성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공동체이익을 우선할 경우 관습적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beta$ 는 일반화된 타인신뢰 0.110, 역대 정부신뢰 -0.046, 호혜성의 규범 -0.014로 도출되었다. 표준화 계수  $\beta$ 가 가지는 의미는 독립변수가 1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요컨대, 결과는 일반화된 신뢰인 타인신뢰가 높을수록 0.110단위만큼 종속변수인 여성의 관습적 참여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둘째, 사회경제변인은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가 많이 도출되었다. 여성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p < 0.001$ ), 학력이 높을수록( $p < 0.05$ ), 소득이 낮을수록( $p < 0.01$ ), 이념은 보수적일수록( $p < 0.1$ ) 투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beta$ 값이 가장 높은 변인은 연령으로 0.367이었으며 소득도 -0.150, 학력도 0.128을 기록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의 특성에 대한 결과는 후술하겠지만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관습적인 참여에 사회적 자본의 변인인 타인신뢰와 결합하여 결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정치참여 II는 모델 I과 약간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분석결과 회귀모델의 적절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5.716, p < 0.001$ ). 그리고 모델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0.085$ 로 도출되었다.

첫째, 사회적 자본 변인은 비관습적인 참여모델에서는 호혜성의 규범 변인이 채택되었고( $p < 0.1$ ), 신뢰변인들은 기각되었다. 방향성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공동체의 이익을 선호할수록 집회 및 시위참여에 적극적이다. 이 결과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 중에서 공동체적인 가치가 더욱 중요할수록 적극적인 비관습적 참여를 한다는 것으로 앞서의 모델 I의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마이너스(-)가 나온 것과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경제변인은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p < 0.05$ ), 학력이 높을수록( $p < 0.05$ ), 이념적으로 진보일수록( $p < 0.001$ ) 비관습적인 참여에 적극적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변인은 연령과 이념이다. 모델 I과 상이하게 비관습적인 참여는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념적으로 진보적인 시각을 가질수록 비관습적인 참여

〈표 4〉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회귀분석 요약

	여성의 정치참여 I (관습적 참여)				여성의 정치참여 II (비관습적 참여)			
	B	표준 β	t	Sig	B	표준 β	t	Sig
(상수)	1.507		11.403	***	1.375		3.951	***
신뢰								
일반화된 타인신뢰	.040	.110	2.142	*	.027	.030	.553	
역대 정부신뢰	-.018	-.046	-.879		.039	.041	.739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호혜성의 규범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005	-.014	-.274		-.082	-.094	-1.778	#
중요								
(1=공동체 이익 중요)								
사회경제 변인								
연령(5-point scale)	.100	.367	5.769	***	-.099	-.145	-2.176	*
학력(4-point scale)	.054	.128	2.168	*	.153	.146	2.348	*
소득(5-point scale)	-.033	-.150	-2.861	**	-.035	-.065	-1.175	
이념(5-point scale)	-.033	-.090	-1.766	#	.185	.199	3.714	***
N	357				357			
F (Sig)	11.172 (***)				5.716 (***)			
Adj R <sup>2</sup>	.167				.085			

# < 0.1, \* < 0.05, \*\* < 0.01, \*\*\* < 0.001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한국의 여성들은 고연령일수록 관습적인 참여인 투표에 참여하고 저연령일수록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또 이념적으로 보수는 투표에, 그리고 진보는 촛불집회나 시위에 더욱 적극적이다.



## V. 요약 및 토론

여성의 정치참여는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면서 대두된 연구주제이다. 초기의 성별 차이인 성 격차(gender gap)에 따른 연구에서 다양한 여성 집단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최근에는 정치 이슈와 관련한 여성의 영향력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주목해 본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차이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적용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행태를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 차이는 신뢰 변인은 채택되지 않았지만, 호혜성의 규범에( $p < 0.05$ )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했다. 통계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남성들은 타인신뢰가 높고, 여성은 타인신뢰가 낮고, 남성은 공적신뢰가 낮고, 여성은 공적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으로는 남성이 공동체성이 강하고, 여성은 개인이익 지향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차이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관습적인 참여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p=0.225$ ). 그러나 비관습적인 참여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관습적인 참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평균이 남성(평균 1.79)보다 여성(평균 1.82)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비관습적인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에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여성들의 관습적인 참여인 모델 I은 일반화된 타인에 대한 신뢰가 강할수록( $p < 0.05$ ), 연령이 높을수록( $p < 0.001$ ), 학력이 높을수록( $p < 0.05$ ), 소득이 낮을수록( $p < 0.01$ ), 이념은 보수적일수록( $p < 0.1$ ) 투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관습적인 참여모델 II는 공동체의 이익을 선호할수록( $p < 0.1$ ), 연령이 낮을수록( $p < 0.05$ ), 학력이 높을수록( $p < 0.05$ ), 이념적으로 진보일수록( $p < 0.001$ ) 비관습적인 참여에 적극적이다.

이 결과는 한국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강화 차원에서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여성들이 개인이익 지향성이 강하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 면에서 여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정치참여 중에서 여성은 적극적인 비관습적

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에서 일반화된 타인신뢰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저신뢰로 도출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다. 사회 환경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범죄나 폭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타인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따라서 여성의 일반화된 타인 저신뢰는 한국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특징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회적 자본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타인저신뢰만으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낮다는 결론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선호 결과도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네오 토크빌리안들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지만(Edwards and Foley 2001, 1; Foley and Edwards 1996),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다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회귀모델에서는 여성이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할수록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기도 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에서 여성의 비관습적인 참여 지향성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이갑윤 2010; 윤성이·장우영 2008) 개인적인 이해가 국가적인 이해관계와 충돌할 경우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일반화된 타인신뢰가 낮고 개인이익 지향성이 강하다고 해서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은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의 비관습적인 참여가 남성에 비해 더욱 적극적인 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여성의 비관습적인 참여의 증가는 공동체적인 질서 속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직접행동을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앞서 여성의 신뢰 하락과 연계하여 한국의 여성들은 신뢰수준이 낮아서 탈물질주의 사회의 대안 없는 무관여와 비참여를 보이는 것(Inglehart 1998)이 아니라 대안적인 참여 통로로서 비관습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의 비관습적인 참여가 높다는 것은 정치구조 속에서 여성들의 제도화된 참여통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경제·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회나 촛불시위 같은 방식의 비관습적 참여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 여성들의 정치적 권리와 관련된 독자적인 집합행동이 대규모로 발생하지는 않지만, 여성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관련된 이슈가 제기될 경우 카터(Carter 2007)가 지적한 적극적인 행동주의(activism)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sup>5)</sup>

셋째,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 중에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은 낮지만 비관습적인 정

5) 실제 최근의 경향들은 여성과 연관성이 높은 이슈에 비관습적인 참여가 증가함을 알려준다. 2014년 4월의 세월호사건 촛불집회에 여성의 참여가 높은 것과,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여성의 참여가 높았던 점을 환기한다면 보다 분명해진다.

치참여에 적극적인 것( $p < 0.01$ )은 여성들이 타인신뢰와 공적신뢰 하락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비관습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미국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분석한 로더(Loader 2007)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기존의 정치질서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자기정체성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정치영역을 모색한다고 보았다. 이를 적용한다면, 단순히 불만을 가지고 불신만하고 불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이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며, 이를 투표나 항의 시위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이 낮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도 더욱 강해져서 정치참여가 높아질 수도 있음을 뜻한다.

넷째,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간의 인과성은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 여성의 관습적인 정치참여와 비관습적인 정치참여가 각각 다른 변인을 채택하고 있다. 정치참여 I은 타인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정치참여 II는 공동체 이익이 중요할수록 참여에 적극적이다. 이는 여성들의 투표참여는 타인신뢰가 강할수록 높게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가치를 중시할 경우 비관습적인 참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 바람직한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으로서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해결과제가 될 것이다.

다섯째, 정치참여 I과 II 모델분석에서 나타난 사회경제변인에서 연령과 이념은 우리에게 향후 심각한 여성의 정치적 분극화(polarization)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있다. 즉 여성들은 고연령이며 보수지향성이 강할수록 투표참여를, 저연령이며 진보지향성이 강할수록 집회나 시위에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사회의 중요한 균열구조로서 세대와 이념은 오래된 정치 문제이다(이갑윤·이현우 2014).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도 이념적으로 세대적인 분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분극화는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선호하는 참여의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몇 가지 고민을 안겨준다. 여성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가 확대된다는 건강한 사회라는 증거일 수도 있지만, 특정한 젊은 층과 진보지향성을 가진 집단이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정치문제 해결보다는 집회나 시위 등의 집합행동 내지는 직접행동으로 해결할 경우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불신과 정부불신이 증가하여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앞서도 지적했지만 여성의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치참여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다. 현 단계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낮은 공적신뢰와 일반화된 타인신뢰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선호하는 속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비관습적인 참여도 남성보다 적극적이다. 이는 여성들도 참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일반화된 타인신뢰와 역대정부 신뢰, 개인의 이익을 선호하는 가치관의 대두 등은 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고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연구를 마치기에 앞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다양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분석하고자 했으나 횡단면적인 분석에 머물렀다. 즉 시계열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추이와 정치참여의 인과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여성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주제이지만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여성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원인과 방향성에 대한 한국적 맥락의 분석이 부족한 감이 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주제로 삼아 보다 적실성 있는 한국의 여성 사회적 자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투고일: 2014년 12월 31일

심사일: 2015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15년 5월 19일

## 참고 문헌

- 강원택, 2007. 『인터넷과 한국정치』. 서울: 집문당.
- 금희조, 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자본.” 『방송학보』 24권 5호, 9-46.
- 김원홍, 2003. “한국여성의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논집』 14집, 37-70.
- 김원홍·김혜영, 2012. 『제19대 총선과 남녀 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여성후보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형준, 2014. “여성 유권자의 정치 성향과 투표 행태 추이에 관한 고찰: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통권 86호, 71-101.

- 매일경제. 2014. “지방의회까지 점령한 女風당당.”(6월 19일), 29.
- 박경미·한정택·이지호. 2014.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구성적 특성.” 이갑윤·이현우 편.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203-232. 서울: 오름.
- 박찬욱. 2004. 『미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서울: 오름.
- 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9권 4호, 547-575.
- 배정아·윤태섭. 2014. “선거제도와 여성참여.” 『지방행정연구』 28권 11호, 29-54.
- 서진완·박희봉. 2003. “인터넷활용과 사회자본: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자본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권 1호, 27-50.
- 송경재. 2014. “정보화 시대의 여성 정치참여.” 『국가전략』 20권 4호, 67-96.
- \_\_\_\_\_. 2011. “소셜 네트워크 세대의 정치참여.” 『한국과 국제정치』 27권 2호, 57-88.
- \_\_\_\_\_. 2010.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2: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동학의 변화” 『국가전략』 16권 4호, 125-150.
- 윤성이·장우영. 2008.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건국 6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 이갑윤. 2010. “촛불집회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정치적 정향과 태도.” 『한국정당학회보』 9권 1호, 95-120.
- 이갑윤·이현우 편. 2014. 『한국의 정치균열 구조: 지역, 계층, 세대 및 이념』. 서울: 오름.
- 이동원·정갑영·채승병·박준·한준 지음. 2010.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소영. 2013. “2012 한국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보』 47집 5호, 255-276.
- 이승중·김혜정. 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장수찬. 200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 신뢰.” 『한국정치학회보』 36권 1호, 87-11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검색일: 2015. 5. 20).
- 최은경·연보영. 2012.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사회자본.” 한국방송학회 방송과 수용자연구회 엮음. 『소셜미디어 연구』, 208-239.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arnes, Samuel and Max Kaase et al.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Western democraci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
- Berman, Sheri. 1997. “Civil Society and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 565-567.
- Bourdieu, Pierre. 1986.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of*

-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arter, April 저. 조효제 역. 2007. 『직접행동』. 서울: 교양인.
-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leman, James. 1990. *The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ick, Bernard. 2003.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lton, Russell J. 1996. *Citizen Politics: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es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2nd ed. Chatham, N.J.: Chatham House Publishers.
-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Edwards, Bob and Michael W. Foley 2001. "Civic Society and Social Capital: A Primer." In Bob Edwards, Micheal Foley, and Mario Diani, eds. *Beyond Tocqueville*, 1-14. Hanover and London: Tufts University.
- Ester, Peter and Henk Vinken, 2003. "Debating Civil Society: On the Fear of Civic Decline and Hope for the Internet Alternative." *International Sociology* 18. No. 6, 659-680.
- Foley, Michael and Bob Edwards. 1996.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Journal of Democracy* 7. No. 3, 38-52.
- Heywood, Andrew 저. 조현수 역. 2002. 『정치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Inglehart, R. 1977. *The Silent Revolution: Changing Values and Political Styles Among Western Publics*. Princeton, NJ: Prince University Press.
- \_\_\_\_\_. 박준원 역. 1998. "후기 물질주의 가치관과 공공기관들의 권위 추락." Nye, Joseph S. 편저. 『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않는가』, 321-349. 서울: 굿인포메이션.
- Shah, Dhavan, Nojin Kwak, and Lance Holbert. 2001. "Connecting and Disconnecting with Civic Life: Patterns of Internet Use and the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Political Communication* 18, 141-162.
- Lipset, Martin, 1960.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Loader, Brian. 2007. *Young Citizens in the Digital Age: Political Engagement, Young People and New Media*. New York: Routledge.
- Manza, J. and C. Brooks. 1998. "The Gender Gap in U.S. Presidential Elections: When? Why?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1235-1266.
- Milbrath, Lester W. and Madan La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 Millett, K. 1970. *Sexual Politics*. London: Granada.
- Newton, Kenneth, 1997. "Social Capital and Democrac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0, No. 5, 575-586.
- Norris, Pippa. 2002. *Democratic Phoenix: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Forum. 2003. *The Policy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um Report No. 28. Dublin Ireland: Government Publications.
- Pateman, C.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 Stolle, Dietlind and Thomas R. Rochon, 1998. "Are All Associations Alike?"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2, No. 1, 47-65.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PENGUIN.
- Uslaner, Eric 저. 박수철 역. 2010. 『신뢰의 힘』. 서울: 오늘의 책.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and Row.

ABSTRACT

---

## A Study on Social Capital and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Kyong Jae Song |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making a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men and women using the social capital approach. For this survey, this study used quota sampling by gender, age, and those consequent on the proportional number of regional population, as well as telephone survey results hosted by Research & Research Co. Lt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it was found that there exis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norm of reciprocity between men and women's social capital. Second, in the difference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tween men and women, women were found to be aggressive in un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Third,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d that the stronger the generalized trust in others, the more aggressive women's conventional participation was, especially the case in the more older ag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low income, and conservative groups. In addition,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more women prefer community interest, and in the case of lower age, higher educational background, and liberal groups, women's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was aggressive.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discovered the implications of possible distorted political participation consequent on Korean women's generalized decline in trust and ideological polarization against generations.

**Keywords:** social capital,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generalized trust, polarization